

## 지역통화운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동배·김형용\*

본 연구는 공동체적 행위가 지역주민의 삶의 양식에 미치는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국내의 지역통화운동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공동체의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지역통화운동 4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통화운동 참여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적 규범을 만들고 습득하면서 구성원의식, 영향의식, 욕구의 통합 및 충족, 정서적 연대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지역통화운동이 함의하는 바는, 원칙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강화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자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통용시키는 능력을 갖추어 동시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소통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화운동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현실 사회구조를 무시한 낭만적인 소규모 공동체운동과 지역주민이 배제된 채 행정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활성화 패러다임 양자를 극복하면서 현대인의 합리적 개인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현대 사회의 지역문제들을 주민 공동의

\*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용(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노력으로 해결하는 자립적 지역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론

지역통화(*community currency*) 운동은 서구 사회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의 2,000여 지역 이상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운동이다. 저마다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역통화운동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 상호부조 증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둔 경제제도 재구성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자립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회복은 지역통화운동의 가장 큰 기능이자 도입 목적으로 꼽히고 있다(Thorne, 1996; Williams, 1997; Pacione, 1997; Cahn, 1997; Ingleby, 1998). 구체적으로 지역통화는 일정 지역사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 주민들 서로가 소유한 자원들을 교환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현금 없이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통화는 명목상 화폐이면서도 실제로는 주민 스스로가 필요할 때마다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단지 물품 및 서비스 교환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유형을 제시하는 부수효과를 갖는다.

국내의 경우 이 운동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지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즉 이 운동은 증대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고용 및 사회해체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지역공동체라는 전근대적, 어쩌면 탈근대적<sup>1)</sup> 모형

1) 여기서 ‘탈근대적’이라 함은 현대의 총체적 ‘위험사회’가 근대적 산업사회의 과학모델로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추구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 위치한다. 지역공동체는 국민국가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시점에서 상실되었던 자치권과 자율을 되찾으려는 재지역화(*re-localization*) 패러다임에 적합한 전략적 차원으로서, 근대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활동이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제도에 의해 지배를 받던 상태를 극복하고 지역주민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게 하는 혁신적인 전환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의 중요성은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가 연대의 원리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성 있는 ‘안전사회’의 가능성을 내놓는다는 데에 있다.

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흐름과 병행되어 시도되었다. 다시 말해 국내 지역통화운동을 또한 지역사회의 미충족 욕구들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자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1999년 말 현재 국내의 지역통화 사례는 대략 20개 내외로, 이를 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하자면 지역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와 지역통화운동의 이념에 관심있는 이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나 시·군·구 동호회 성격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교육통화)로 나뉘어질 수 있다.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전자에 속한 사례들로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상부상조의 사회건설을 향한 '공동체적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에 속한 지역통화운동 사례들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주민들의 집합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통화운동 참여경험이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지역통화운동의 형태와 특성, 국내의 지역통화운동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지역통화운동 실태와 참여자들의 변화된 공동체 의식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통화운동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사회복지실천방법론 중 지역사회조직의 거시적 실천방안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운동, 지역사회 자조운동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연구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서 사회기분구조 강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지역사회개발의 급진적 접근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

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권화를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육성한다는 데에 있다.

## 2. 지역통화운동 -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역공동체 경제

### 1) 지역통화의 형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보편화된 20세기 초에도 시장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국가화폐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대안화폐로써 지역통화가 등장하였던 적은 자주 있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전의 지역통화제도들은 국가통화시장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또는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그 역할도 감소하여 현재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지역통화제도인 레츠, 타임달러, 아워즈는 국가로부터도 강력히 지지받고 있는 보완적 의미의 화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에는 이들 지역통화가 엄밀한 의미에서 화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레츠, 타임달러, 아워즈는 어떠한 지역통화인가?

#### (1) 레츠

먼저 레츠(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의 한 소도시를 시작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1998년 현재 350개가 운영 중인 영국을 비롯하여, 약 500개 이상의 유럽 및 호주지역, 한국의 지역통화 등이 이 모델을 따르고 있다. 레츠는 ‘현금의 사용 없이도 사람들간에 상품과 서비스들의 모든 종류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서비스 및 물품 교환거래망’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회원들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거나 구입 희망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등록시킨 후 레츠 화폐를 사용하여 거래를 한다. 여기서 대부분의 레츠는 실제로 주고받는 화폐가 존재하지 않고,<sup>2)</sup> 다만 개인회원들의 계좌에 기록되는 화폐만 있을 뿐이다. 레츠의 주된 도입 요인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되지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레츠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이익도 사회적인 동기의 맥

2) 이는 레츠 등록소(운영회)에서 계좌기록만으로 관리되는데, 즉 각 구성원은 개인 계좌 및 수표책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시 합의된 액수를 수표에 써 등록소에 보내거나 또는 전화를 통하여 그들의 거래가 각 회원의 계좌에 기록되도록 할 뿐이다. 각 회원이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하면 차변(마이너스: *deficit*)이, 제공하면 신용(플러스: *redit*)이 되며, 이러한 거래 내역은 매월 회보를 통해서 공개된다. 차변과 신용의 균형은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모든 회원들은 다른 회원 계좌의 신용정도와 거래량을 알 권리가 주어진다.

락에서 나타난 것이며 재화와 서비스 교환은 비경제적인 동기에서 배태된 것이므로 단순히 경기침체에 대한 반사적 반응으로 보기보다는 좀더 복합적인 요인, 즉 인간중심적 사회로의 변화와 공동체적 사회를 향한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rone, 1996). 이는 레츠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 (2) 아워즈

반면 아워즈(HOURS)는 레츠와 기본적인 개념은 같으면서도 실제로 화폐를 발행하여 거래에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되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접근도를 높인 예이다. 즉 레츠가 회원들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아워즈는 한 시간 노동을 기초한 1아워즈(10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2아워즈, 1/2아워즈, 1/4아워즈라는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지폐화폐는 소규모 거래에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데, 이는 지역의 상점들이 수십 개의 조그마한 레츠거래를 매일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워즈의 탄생은 레츠의 신용거래보다 더 빠르게 순환하고 더 많은 주민들을 즉시에 가입시킬 수 있다는 고려에 기인한다. 또한 레츠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은 원하거나 제공하려는 상품 및 서비스와 회원의 리스트가 단지 회원들에게만 배포되어 비회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협소한 인원구성을 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아워즈는 전체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손에 의해 아워즈 정보지가 배포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적으로 열려있다.<sup>3)</sup> 따라서 미국 뉴욕주 이타카 시의 아워즈 사례를 보면 지역화폐를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어 아워즈와 달러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점차 이타카 아워즈만으로도 상점에서의 상품 구입, 집세 지불,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기

3) 최초의 아워즈 시스템은 1991년에 뉴욕주에서 창설된 'Ithaca Money'이다. 여기서 아워즈 시스템은 계좌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용되는 지폐를 발행하였는데, 그 동기는 창시자 Pole Grover가 이미 이타카 지역에서 레츠를 운영한 경험에서 얻은 것이었다. 이전의 이타카 레츠의 경우 10달 동안 약 6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나 운영기관인 지역사회 자립센터가 문을 닫은 1988년에 레츠도 같이 중단되었다. Pole Grover는 이 경험으로부터 보다 단순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관리운영상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할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계좌 기록의 필요없이 즉시 개인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화폐를 고안한 것이었다(Douthwaite, 1996).

도 하다.<sup>4)</sup>

### (3) 타임달러

위의 두 제도가 지역경제 및 화폐에 중심을 둔 통화제도의 모습을 띄고 있다면, 타임달러는 일종의 자원봉사은행에 가까운 제도이다. 다시 말해 타임달러는 초기에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당사자들이 필요시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타임달러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요처를 서로 등록을 시킨 후, 각자에게 맞는 봉사 내용을 타임달러 연구 소리는 중개소에서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다. 타임달러 제도에서는 자원봉사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1시간당 1타임달러를 봉사자에게 지불하고, 자원봉사자의 계좌에 기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임달러를 저축한 개인은 본인의 용도로, 또는 본인이 적근 추천하고 싶은 곳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타임달러는 레츠와 달리 물품의 교환거래는 없으며, 레츠와 같이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상호호혜성을 전제로 한 자원봉사제도에 가깝다. 신타크루즈 타임달러는 서비스 교환 네트워크(*service barter network*), 서비스 교환 프로그램(*service exchange program*)라고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Douthwaite(1996)는 타임달러와 레츠를 비교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레츠와 같이 물품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타임달러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된다고 보았다.

## 2) 지역통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현재 지역통화의 이론적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외 문헌들도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역통화운동을 공동체의식에 초점을 두어서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예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성 속에서 지역통화 개념을 통해 지역통화운동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능에 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4) 1995년 기준으로 인구 3만 명의 이타카 시에 회원가입 수는 1,500명에 이르며, 이중 상점을 포함한 사업체는 무려 250기에 달한다(Douthwaite, 1996).

## (1) 지역사회개발론적 접근

지역사회개발이란 '지역적 장소나 문화적 철학적 연대의식, 또는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항을 드러내는 계획된 행동'으로,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측면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연계망, 새로운 기술, 그리고 경제적 배치의 효과적인 구조와 기능을 확장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Harrison, 1995).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은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노력해 왔으며, 지역사회의 결속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지역사회 모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통화운동을 바라보는 지역사회개발론적 관점도 이러한 위치에서 있다. 지역통화운동이 현대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도구라든가 또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경제체제로서가 아니라, 보완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본래적 성격이라는 것이다(DeMeulenaere, 1998). 여기서 보완적 의미라 함은 지역사회 자원들을 유기적인 연계망으로 묶어내어 보다 더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상호부양의 기능을 되돌려 주고, 사회 취약성원들에게는 생계수단 및 소득을 보완하게 한다는 시각이다.

지역통화제도는 실제로 지역경제 자립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삶의 양식에 많은 부분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기능으로서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립적 지역사회 건설

지역통화는 간단히 말해 '지역 스스로의 화폐를 제한된 지역내에서 유통시키는 제도'로서, 경제의 위계구조에 의하여 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저지하며 지역 자원의 교환 위주로 화폐의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화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한다. 또한 생산과 분배에 있어 양극화의 도구가 되는 국가통화의 '회소성'과는 달리 지역통화는 구매행위를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실제 구매력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완전하게 인간의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풍부함'에 기반한 해방적인 화폐가 된다(Thorne, 1996). 따라서 지역통화의 목적은 국가 및 세계시장 이데올로기를 대신하여 '지역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Pacione, 1997). 구체적으로 지역통화는 지역내 모든 자원들의 교환을 촉진하고 지역내 소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일자리

를 만듦으로써 자립적인 지역사회 경제를 창출한다(Visser, 1996). 따라서 지역통화 운동의 매력은 우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고, 지역사회거발론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으로 무엇보다 1990년에 이르러 캐나다 Courtenay 지역통화에서 지역통화가 지역 GDP의 1/5을 차지하기도 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통화는 지역사회 취약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Time Dollar의 경우 타임달러 취업사무소(Time Dollar Community Employment Agency)를 통해 실업자들의 근로 활동 참여, 직업 소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통화를 이용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따라서 Williams(1996)는 지역통화가 지역의 유희 노동력을 노동시장내에 편입시킴으로써 실업자 구제방안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Pacione(1997)는 많은 이들이 지역통화의 가치에 대해, 지역통화가 실업과 불완전고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지역통화는 지역사회 취약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품목들과 소득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 때문에 제3섹터의 사회안전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 ② 지역사회 상호원조 기능의 확대

지역통화는 지역사회 연계망을 강화시켜 지역주민들의 상호원조를 가능하게 한다. 지역통화제도에서의 교환거래는 주민들에게 상호호혜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Cahn, 1997). 따라서 외국의 경우 지역통화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어, 지역사회 내의 상호부조 기능을 증진시켜 주고 있다. 이에 영국 맨체스터 레츠에서는 실업자의 73.3%가 도움을 청할 보다 넓은 사람들의 연결망을 얻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Williams, 1996). 또한 일정 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지역의 한계계층을 위해서 적립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지역통화에 가입한 기업에게 지역사회 기부금을 내도록 권장하여, 이를 지역사회기금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영국 버밍햄 지역의 레츠시스템은 Social Fund라는 명목으로, 질병이나 위기 때문에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비회원들에게 회원들의 레츠 품목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sup>5)</sup>



### ③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역통호운동은 거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역량강화(empowerment)시킨다는 점이 강조된다(Ingby, 1998). 지금까지 전체주의적(totalitarian) 공동체 운동들이 인간의 개별 욕구를 사상한 채 협동적 지역개발과 교환거래에서의 원칙만을 공동체의 기초 조건으로 간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경제적 이슈에 종속시키고 개인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뜨렸던 것과는 달리, 지역통화는 주민들의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그들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지역사회개발 도구라는 것이다. 즉 지역통화는 지역주민들 삶의 자립 및 참여 조건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동안의 현금경제가 부여하였던 자신에 대한 무용성 그리고 사회와 자신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극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Brandt 1995; Seron, 1995; Visser, 1996). 또한 지역통화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지함 없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존감에 기여하고, 개인 수준에서 사장될 수 있는 기술이 직업이라는 태두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문적인 능력도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randt, 1995).

### (2) 생태주의 사회로의 진보

지역통호는 중앙화된 국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인간활동의 범위가 지리적으로 좁은 생태계의 경계내에서 기초해야 한다는 생물지역주의와 부합한다. 근대화기 초래한 불균등한 지역발전, 생산의 부분별성과 소비의 과잉,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자본간의 경쟁적 이익에 의해 추진되는 효율성 경쟁이 사회적·환경적 비용들을 계산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반면, 지역통화는 지역 중심의 생태적 욕구에 따른 경계를 정착시켜 사회적·환경적 생산비용의 완전한 내부화(internalization)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주의 경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eyfang, 1994). 지역통화는 지역욕구에 따라 지역생산을 증감시킬 수 있으며 단지 현금소득을 벌기 위

5) 버밍햄 리츠는 Social Fund 명목으로 계좌를 만든 다음, 회원들이 지역사회 취약구성원들에게 봉사하면 이 계좌로부터 봉사한 회원들에게 지역화폐를 지불하게 하였다. 반면 Social Fund 계좌는 각자 자율적으로 이 계좌에 지역화폐를 기부하게 함으로써 균형이 맞추어지도록 되어있다.

하여 지역환경의 질을 조정할 필요가 없게 한다. 예를 들어 상품수송을 통하여 발생하는 교통공해를 감소시키고, 산업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자원의 대량소비와 공해 유발적인 산업체제의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 노동력 사용으로 서비스 인건비가 낮아져 손쉽게 도움을 받아 자원을 고쳐 사용하게 되고, 재활용되고, 폐기물이 줄어들며, 녹색 소비양식이 장려될 수 있다.

한편 지역통화는 생명계 평등주의와 자족적인 생활권을 지향하는 네스의 근본생태학에서부터 사회내의 모든 위계제를 극복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강조하는 복천의 사회생태학과도 일치한다. 더욱이 지역통화의 소규모 공동체 경제는 ‘얼굴을 아는 거래’라는 체계적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품목의 가치는 협상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의 욕구가 지불되는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면에서 강한 사회주의적 평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결국 지역통화는 소그룹, 지역별로 규제되는 새로운 노동방식과 비물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발전 계획이며, 지역사회 공동의 자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성과 소유의식을 만들어내는 의식적 운동이다. 현대 지역통화제도의 창시자들이 대다수 생태사회주의자일 뿐 아니라, 서구의 상당수 지역통화제도 참여자들은 녹색주의자들이 50%를 상회한다는 점 또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 3. 외국의 지역통화운동<sup>6)</sup>

#### 1) 영국

영국의 경우 1984년을 기점으로 레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985년 영국 최초의 Norwich 레츠가 등장, 1992년에 5개, 1994년 275개, 96년 말 350개 이상의 지역에서 레츠를 사용하고 있다. 각기 Stroud, Acorn, Trug, Bobbin 등의 무형화폐를 통용하는 영국의 레츠는 1992년 레츠지원 네트워크인 레츠링크<sup>7)</sup>의

6)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지역교환거래망 구축을 통한 실업자보호 방안연구’(한국소비자보호원, 1999)에 참여하여 조사한 내용 일부이다.

7) 레츠링크는 Liz Shephard에 의해 1992년에 만들어져, 영국 레츠 확산의 주요 기폭제 작용을 하였다. 레츠링크의 역할은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레츠를 홍보하고,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립과 더불어 각종 미디어와 지역의 홍보를 통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1995년 Williams가 실시한 영국 275개 레츠 현황에 관한 조사를 보면 평균 85.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평균 6,006파운드의 거래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수치를 1996년 말 현재 350개 레츠로 환산하면, 영국의 레츠는 총 3만 명의 회원과 연 거래 규모 210만 파운드로서, 이미 영국 사회 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회원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1인당 연거래 규모는 평균 100파운드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전체 평균 거래액 규모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1인당 거래규모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Williams, 1996).

〈표 1〉을 보면, 설립연도에 따라 비교적 오래된 레츠가 더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연 거래규모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국의 레츠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레츠의 본 고장보다도 영국에서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Thorne(1996)는 레츠를 단순히 경기침체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라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요인, 즉 과거 20년 동안 영국에서 산업 구조 재조정과 맞물린 하층계급의 발전, 파트타임 및 허드렛일의 성장과 맞물리어 정규직, 화폐, 신용의 자본주의적 조합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한하게 된 구조적 문제가 그 배경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레츠는 현재 비록 회원구성 중

〈표 1〉 영국 레츠의 현황

구분(설립연도)	전체 비율(%)	평균 회원수	년 거래액(파운드)	
			전체	1인당
1995	8.6	31.0	252.00	8.13
1994	35.8	56.9	2690.50	47.28
1993	35.8	71.3	3223.40	45.21
1992	9.9	162.5	17085.00	105.14
1991 이하	9.9	183.5	16500.00	89.92
계	100	85.6	6006.00	70.16

N = 90.

\* 자료: C. C. Williams(1996),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 a new source of work and for the poor and unemployed?",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28.

물론, 레츠 운영에 필요로 되는 소프트웨어 및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레츠링크라 불리는 잡지를 분기별 발행하고, 세금과 같은 특정한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유럽 및 3세계의 레츠 네트워크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Carmen, 1997).

중산층의 녹색주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비율에서 점차 여성과 실업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앞으로의 지역통화운동을 광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호주

레츠는 여타 국가보다 호주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호주 최초의 레츠는 1987년 킨즈랜드 델러니 지역의 소도시에서 만들어졌으며 이후 1988년에 4개, 1990년에 34개, 1994년에 164개, 1996년 250여 개의 레츠로 확대되었고, 1989년에는 호주 레츠의 네트워크인 오즈레츠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Williams, 1997). 1996년 현재 호주 레츠의 규모를 보면 평균 가입 회원은 145명이다. 결성 당해 연도의 가입회원은 평균 27명이며, 결성연도가 오래될수록 규모가 늘어나 가장 오래된 레츠의 경우는 평균 824명 정도의 규모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중 현재 호주 레츠의 68.9%가 지속적으로 확대중에 있으며, 2.2%만이 감소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많은 수의 호주 레츠가 결성 과정에서 정부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서던 웨일즈 정부의 5만 달러와 4만 3천 달러의 보조금 지급은 정부가 레츠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예증한다(Seron, 1995). 정부의 레츠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복권

〈표 2〉 호주의 레츠 회원규모별 현황

(단위 : 호주달러)

구분(회원 수)	전체 비율(%)	평균 거래규모	1인당 평균 거래규모
50명 이하	35.4	4,804.5	105.70
50~99명	22.7	24,269.5	237.64
100~199명	22.7	75,256.0	444.97
200명 이상	18.2	128,527.5	377.89
계	100.0	55,064	329.80

N=57.

\* 자료 : C. C. Williams(1997),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 (LETS) in Australia: A new tool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1.

및 보조금 제도로부터도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하에, 호주 레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연간 거래액은 평균 55,064호주달러, 거래회원 1인당 평균 거래액은 329.80호주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일부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정하자면 1995년 현재 호주 전체의 레츠 회원수는 총 24,700명(전체인구의 0.14%), 연간 거래규모는 940만 호주달러로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0.00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3)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레츠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6년 James의 Whangarei 레츠이다. 1984년 런던에서 개최된 케이크 대안경제회의에 참석한 James와 Hutchinison은 녹색달러를 뉴질랜드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sup>8)</sup>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보았으며, 이들은 레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각자의 지역에 레츠를 설립하였다. 이후 1993년을 지나면서 뉴질랜드의 레츠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결과 뉴질랜드의 레츠는 1993년 53개에서 현재 75개가 운영되고 있다(Jackson, 1993; Williams, 1997).

뉴질랜드 레츠의 성장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정부의 역할이 크다. 레츠는 다양한 지원망들에 의해서 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들 지원망 대부분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되는 것이다. 내무부는 지역 내 고용창출을 위한 대안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기반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고용프로그램(*The Alternative Employment Programme*)과 지역사회조직 보조금제도(*Community Organizations Grant Scheme*)를 통하여 레츠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및 교회, 복권제도와 신용은행의 보조금 등 레츠 지원 연결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였다. 이에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레츠가 정부를 통해 받은 지원금 규모만 약 15만 달러에 다다랐다고 한다(Jackson, 1993).

뉴질랜드의 경우도 여타 국가의 레츠 특성과 유사하다. 뉴질랜드 개별 레츠의 평

8) 실로 뉴질랜드는 Lange-Douglas 정부의 등장 이후 급진적인 구조조정정을 실시 중이었고, 1987년에는 주식시장의 붕괴와 경기침체와 맞물리어 대량실업을 맞고 있었다.

균 회원수는 87명으로, 평균 3,141달러의 레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전체를 보면 월평균 거래액은 144,484달러이고, 이는 연 2백만 달러에 근접하는 수치에 달한다. 뉴질랜드 레츠에서 주로 거래되는 품목의 경우 대부분은 가사노동이 일반적이며, 변호사 업무와 같은 전문직 기술은 실제 거래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Jackson, 1993).

#### 4) 유럽

레츠는 유럽대륙에서도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16개국 이상에서 약 100여 개의 레츠가 운영되고 있다(Seron, 1995). 아일랜드에는 약 30개의 활성화된 레츠가 있으며 (Douthwaite, 1996), 본 연구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파악한 각국의 레츠 수만 해도 독일 10개, 네덜란드 15개, 노르웨이 10개를 비롯하여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각각 2~10여 개가 된다. 규모 면에서도 유럽의 레츠는 영미권에 뒤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Noppes 경우에는 회원수가 800명 이상이며, 스위스에서 운영되는 Talent 시스템은 전국적 규모의 단일 레츠이면서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Talent 간의 교환거래도 이루어지는 광범위 지역화폐이다. 한편, 레츠의 특성 면에서 유럽의 레츠는 영미권 레츠의 특성과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 노르웨이 4곳의 레츠에 관한 조사연구를 보면, 회원의 대부분이 여성(70.9%), 30~40대(63.2%), 대졸이상 학력(81.9%), 취업자(65.8%)이며, 경제적 면에서도 중상계층의 이들이다. 정치적으로는 급진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으며, 가입 동기로는 레츠 이념에 대한 동의로 나타났다(Gran, 1998).

#### 5) 기타

캐나다의 경우에는, 레츠 지역화폐의 시초인 1983년 Courtenay 레츠 설립 이후 1987년에 12개의 레츠가 생겼으며(Dauncey, 1996), 현재까지 30개 정도의 레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레츠는 Peterborough 레츠로서 지역사회 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시작하여서 1999년 현재 회원수는 약 350명, 거래규모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3배수 가량 증가를 통해 현재까지 총 170,000 녹색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거래규모는 다른 지역 레츠와 달리 소매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보조금으로 풀타임 봉급이 수여지는 사부직원이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지역의 제3세계에서도 지역통화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그 숫자는 매우 작다. 이는 영미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늦게 접하게 된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또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국가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술(인터넷 사용)의 부족, 서구와는 달리 자원봉사가 빈약한 국가에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심, 지역통화시스템 연구 및 설립 자금의 부족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제3세계의 지역통화로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운영되는 'Bons De Travail', 남미 아르헨티나의 'Salta Provincial Bonds', 브라질의 'Curitiba Scrip', 아시아 인도의 'Bonus Scrip' 등이 있다. 이는 레츠와 같이 회원들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형화폐의 통화시스템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자체 발행한 아워즈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연유 때문이다. 남아프리카에서는 Yeoville 지역에서 레츠를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케이프타운에서 준비중에 있다. 다만 남아프리카 지역통화운동을 지원하는 SANE 네트워크가 레츠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을 뿐이다.

#### 4. 국내 지역통화운동의 발달

국내의 지역통화운동은 1998년 3월 민간단체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미내사)을 시작으로 1999년 초반기부터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어져서 '품앗이', '기술도구은행' 또는 '교육통화' 등의 형태로 대략 20개 내외로 확산되었는데, 이들 지역통화는 대다수 레츠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성격은 저마다 차이가 있어 운영단체들의 접근방식에 따라 각각 공동체문화, 사회복지적 기능성, 또는 문화·교육 자원의 교환망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회원수는 외국의 레츠 사례들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1999년 8월부

터 11월 사이 본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99년 11월 현재 미내사 fm (future money) 시스템이 447명, 송파품앗이가 101명, 서초품앗이가 283명,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이 342명으로서 이는 영국 평균 85.6명(1995년 기준)과, 호주 평균 145명(1996년 기준)보다도 훨씬 많다. 그러나 많은 회원 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례들의 교환거래 규모는 매우 저조한 편인데, 이는 대다수 교환거래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보듯, 교환거래를 시작한 지 4달밖에 되지 않은 송파품앗이의 사례를 보면 교환거래를 시작한 지 8월에 2건, 9월에 7건, 10월에 17건, 11월에 20건으로 계속 두 배 수 가량 증가하고 있어 99년 11월 현재 101명의 회원 중 23명의 회원들이 총 거래 2,102,000 sm<sup>9)</sup>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거래규모로 환산하면 91,391원 가치가 된다. 더욱이 100,000 sm 이상 교환거래자는 4명으로 이들은 지난 세 달간 평균 294,500원 가치의 교환거래를 하였다.<sup>10)</sup>

국내 지역통화 운영단체들은 지역 주민들간의 경제적 연대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보조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혜택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적인 국내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결코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었다.

<표 3> 송파품앗이의 거래 규모

단위 : sm(원과 동일가치), 기간 : 1999.8~11.

구분	1만원 미만	1만 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계
거래규모	8,000	188,000	728,000	1,178,000	2,102,000
거래 회원 수	1	8	10	4	23명
1인당 평균 거래규모	8,000	23,500	72,800	294,500	91,391

\* 자료 : 송파품앗이 내부자료, 1999.

9) SM(songpa money) : 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송파품앗이 지역화폐명.

10) 국내 지역통화 단체들의 화폐명은 각기 다르지만 그 가치는 모두 원과 동일하게 두고 있다. 즉, 1만원 상당의 서비스나 물품은 각기 1만 fr, 1만 sm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편 각 단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래규모는 각 회원들의 거래 기록을 모두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 거래가 이루어졌을시, 거래규모는 제공자와 구입자 각 1만 원씩 2만 원으로 합산된다. 따라서 회원들의 거래규모는 매 교환거래시 적립되는 플러스 및 마이너스 액수를 합친 규모이므로, 실제 거래된 전체규모는 1/2이다.



비교적 거래내용이 안정적인 송파품앗이의 초기 4개월 동안 일어난 총 49건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미용관련 16건, 교육관련 15건, 수리서비스 10건, 상담서비스 3건, 아동물품 3건 순이며, 이밖의 교환거래는 2건 밖에 없다. 즉, 생계와 관련되어 소비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단순노동은 김치 담가주기 1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모습은 경제적 연대라는 것이 한정된 품목에서 한정된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래는 전문적인 기술, 자기기술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특정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참여는 아직 저조하다. 일반주민들은 자신이 내놓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받고 싶은 것도 억제하고 있으며, 단순노동과 같은 서비스는 자존심이 손상될 것 같은 이유에서 참여자가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나머지 사례들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심지어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자녀과의 서비스가 대부분인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지역통화 4단체(미내사 fm, 송파품앗이, 서초품앗이,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이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9)에서 실시한 전국조사 자료 일부에 본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실시한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sup>11)</sup>

먼저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여성, 40대, 대졸자, 중상의 소득수준, 자영업자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층이 많다는 점은 비교적 경제적인 혜택을 요하는 지역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 지역통화운동도 대다수 외국의 사례들처럼 도입 초기에는 지역통화제도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중산계층의 녹색주의자와 대안론자가 압도적이라는 점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역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서초품앗이와 송파품앗이와 같이 서울에서도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회원 현황을 보면, 1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은 송파품앗이 3.8%, 서초품앗이 10.2%인데 반하여 300만 원 이상 소득의 회원은 서초품앗이의 경우 30.5%까지 달하였다. 그러나

11) 참여자 실태조사는 1999년 9월 지역통화운동 4단체(미내사 fm, 서초품앗이, 송파품앗이,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 참여자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215부(33.1% 회수율)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저소득층 지역에서 실시하는 봉천 10동 기술도구은행은 200만 원 미만이 총 79.0%, 특히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참여자는 21.1%나 차지하였다. 즉, 지역에 따라 지역통화운동의 내용과 참여자들이 바라는 점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5>에서 보듯, 이들 참여자들이 해당 제도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주로 개인의 경제적 동기보다는 이념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통화운동이 추구하는 이념과 취지가 마음에 들어서(54.7%)’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주된 참여자 동기로 나타난 ‘경제적 이유’, ‘이웃 형성’ 동기와 대비되고 있다.

<표 4> 참여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구분		N	구성비(%)
성별	남	98	46
	여	115	53
연령	20세 미만	16	7.5
	30대	63	29.6
	40대	79	37.1
	50대	43	20.2
	60세 이상	12	5.6
교육	중졸 이하	10	4.3
	고졸	71	34.0
	대졸 이상	129	61.7
월가구소득	100만 미만	18	9.5
	100만~200만 미만	60	31.7
	200만~300만 미만	60	31.7
	300만 이상	51	27
취업유무	취업	138	65.7
	미취업(전업주부, 학생)	63	30.0
	실업	9	4.3

<표 5> 참여자들의 가입동기

(단위: %)

구분	이념 및 취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경제적 이유	이웃 사귄	기타
전체	54.7	15.9	14.9	4.0	10.4

그리고 참여자들 대다수(83.7%)는 실제로 장부에 자신들의 서비스 및 물품을 등록시켜놓고 있는데, 자신이 제공받고 싶은 내용을 등록한 이들(32.6%)보다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등록한 이들(55.8%)이 더 많아, 이 거래에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싶은 품목으로는 교육관련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전문 서비스, 가사서비스, 단순노동 봉사서비스, 주택 수리서비스 등이다. 반면 식품 및 의복, 생활용품은 매우 낮게 나타나서, 국내 지역교환거래망은 서비스 교환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국과 호주 등 외국의 지역통화 시스템에서 생활용품과 가사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표 6> 참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품목(다중응답)

구입희망(N=70) 구성비(%)	품 목	제공가능(N=121) 구성비(%)
41.4	교육 및 교습서비스	32.2
20.0	전문서비스	12.4
20.0	가사서비스	11.6
14.3	단순노동서비스	19.8
12.9	주택 수리 서비스	9.1
12.9	식품	3.3
12.9	생활용품	4.1
8.6	의복	5.8
7.1	의료서비스	7.4
10.0	기타	15.7
160.0	계	121.5

<표 7> 지역통화제도의 장점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응답 내용	응답자 수	구성비(%)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122	58.4
개인적인 경제적 혜택	80	38.3
지역경제의 활성화	65	31.1
실업자 및 한계계층의 자조시스템	55	26.3
환경친화적인 경제시스템	34	16.3
지역경제 예측의 극복 대안	19	9.1
기타	6	2.9
계	381	182.3

〈표 8〉 지역통화제도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응답 내용	응답자 수	구성비(%)
홍보 및 인식의 부족	134	63.8
이용 거래 품목의 부족	59	28.1
적은 회원수	25	11.9
등록 품목의 비전문성 또는 낮은 신뢰성	36	17.1
거래 상대방의 신뢰 정보 부족	75	35.7
거래 절차의 번거로운	20	9.5
거래 회원의 원거리 분산 분포	44	21.0
계	393	187.1

〈표 7〉에서 보듯 지역통화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8.4%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이나 '개인 및 지역의 경제적 혜택'이 많이 선택되었고, 환경친화적 제도와 대안경제로서의 기능은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장애요인으로는 〈표 8〉과 같이 홍보 및 인식 부족을 응답자의 63.8%가 언급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부족, 품목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 5. 국내 지역통화운동 참여자의 공동체의식

### 1) 조사 및 분석 방법<sup>2)</sup>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화제도 참여 이후의 참여자의 공동체의식 강화 정도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자 20여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본은 현재 국내 지역통화제도 참여자들 중 실제 거래경험이 있는 이들로 한정, 각 단체의 거래 기록 장부를 통하여 무작위 선정하였다. 표본 수는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지만, 실제 거래경험이 있는 참여자 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역통화제도의 탐색적 작업을 진행하는 데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대치였다.

2) 공동체의식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4개 사례 - 미네사틴, 송파품앗이, 서초품앗이, 봉천13동 기술도구은행 - 20명과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내용의 참고자료로서 응답자의 공동체의식 강화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공동체의식의 4가지 차원을 McMillan & Chavis(1986)의 개념정의에 따라 (1) 구성원의식 4문항, (2) 영향의식 3문항, (3) 욕구의 통합과 충족 4문항, (4) 정서적 연계 4문항으로 나누어 총 15개의 항목을 지역통화운동 경험 이후의 변화 인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각 항목은 공동체의식 개념화와 관련되어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다.<sup>13)</sup>

이 양적인 공동체의식 점수는 통계적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간의 경향과 중점정도를 파악하여 응답자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점 이상은 적극적 긍정자, 3점 이상은 소극적 긍정자, 3점 미만은 부정적 인식자로 분류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이 응답지를 기초자료로 삼고서 위 4가지 차원에서 응답자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구문제에 접근하도록 개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은 공동체의식 4가지 차원 각각에 대하여, 심층면접내용 기록지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내용을 Miles & Huberman(1994)의 사례순서 매트릭스(*case ordered matrix*)를 이용하여 재기록하였는데, 공동체의식 강화에 대한 내용분석은 이 사례순서 매트릭스를 근거로 하여 ① 가장 많이 중복된 내용 ② 응답자가 강조한 내용 ③ 공동체의식 강화 관련 측정 점수에 따른 응답자들의 유형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 연구결과 - 지역통화운동 참여경험과 공동체의식의 강화

면접결과, 20명의 면접대상자들은 단지 2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공동체의식 강화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성원의식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지역'화폐를 매개로 교환거래를 함으로써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에 대한

13) Glynn(1981); Chavis, Hogge, McMillan & Wandersman(1986); Davidson & Cotter(1986); Nasar & Julian(1995); Lambert & Hopkins(1995); Lounsbury & Deneui(1996); Perkins, Florin, Rich & Wandersman(1996); Sagy, Stern & Krakover(1996); 김경준(1998); Prezza & Costantini(1998); Royal & Rossi(1999).

소속감을 느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영향의식과 관련해서는 참여자들이 그들 집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고 이 규범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들이 표현되었으며, 욕구의 통합 및 충족과 관련해서 자아실현의 기회와 정서적인 만족감이 지역사회로부터 충족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정서적 연계와 관련해서는 교환거래를 통해 알게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 대한 친밀감과 연대감은 매우 고양되었다.

#### (1) 구성원 의식-소속감과 책임의식의 강화

구성원의식은 다른 집단과 구별되어 구성원이 자신과 동질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하는 소속감과 정서적인 안전감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부분을 투자하며, 공동체에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표 9>에서 보듯 면접 결과, 20개의 면접사례 중 18개의 사례들이 이러한 내용에 긍정적인 응답을 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소속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지역통화운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에 사람을 포함시켜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소속감의 확인이 지역사회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통화체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단정체성이 '나눔'에 있다고 보는 이들로, 참여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과 의미에 공감하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수반한 공동체 규범을 습

<표 9> 구성원의식을 반영하는 면접내용

구분	사례 수	내용
적극적 긍정	12	· 다들 비슷하게 행동할 것 같고, 새삼 ** 주민임을 느끼게 한다. · **구는 역시 분위기가 다르다, 소속감을 느낀다. ·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에 책임감이 커진다. · **구에 자부심이 생긴다. 자긍심을 가질 만하지 않는가. · 함께 하고,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것.
소극적 긍정	6	· 아직 사회로까지 생각을 넓히지는 못한다. ·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다.
부정	2	· 다들 속셈이 있어서 하는 것 또는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 구성원의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3.98임.

득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면접대상자 중에는 지역통화운동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는 현실성에 대한 의심으로서 다들 먹고살기도 바쁜데 생활이 풍족한 사람들 말고는 누가 남과 나누면서 살겠느냐라는 태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통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구성원의식을 심어준다기보다는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인식의 계기 및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영향의식 - 공동체적 규범의 확산

영향의식은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에 가하고 있는 규제력 또는 규범의 전파력에 대한 의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규율에 맞추어 행동양식을 정하는데, 감찰하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또한 명백하게 규율로서 정해지지 않아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습속에 기반한 규범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행위를 장려받는다.

〈표 10〉에서 보듯 대다수의 지역통화운동 참여자들은 우선 교환거래경험을 통해서 이웃사회가 자신의 삶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 이러한 의식을 표상하는 단어로는 ‘부담’이다. 지역화폐로의 거래는 현금거래와는 다른 신뢰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부여하는 속성들이 매번 대면상황에서의 바탕이 되면서 규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관계가 주는 구속감이다. 따라서 지역통화운동이라는 틀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이러한 구속감은 지역주민의 행동 규범을 전

〈표 10〉 영향의식을 반영하는 면접내용

구분	사례 수	내용
적극적 긍정	6	· 특유의 행동 제약이 생겼다. ·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 지역 사람들에게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아있다. ·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이 나아질 것 같다.
소극적 긍정	11	· 지금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지역에 몇 사람만이라도 사람들이 포근해지면 지역전체가 변하는 것이다. · 서로 왕래가 많지 않으니까, 지역을 위해 같이 뭘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다.
부정	3	· 이런 게 뭘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 영향의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3.67점.

파하고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신뢰관계가 주는 구속감은 지역통화를 둘러싼 참여자 집단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현재 지역통화운동의 참여자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촉 공간이 늘어나면서 그와 더불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주위로부터의 기대치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즉 자신이 배운 새로운 윤리규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실천해 보임으로써 ‘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 (3) 욕구의 통합 및 충족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보상

공동체의식 하위차원으로서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참여자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상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참여자들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한 기회들을 지역사회내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제공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물질적인 보상을 강조한 참여자들도 있었으며, 심리적인 보상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 또는 자신과 유사한 신념을 가진 다른 이들과의 만남의 기쁨 및 자아실현 등을 강조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물질적 보상에 대한 인식은 이전에는 현금으로 구입할 수 없었거나 망설였던 것들을 현재는 지역화폐를 통하여 쉽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역통화체도가 부가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던 사례 단체들의 목표

〈표 11〉 욕구의 통합 및 충족을 반영하는 면접 내용

구분	사례 수	내용
적극적 긍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쉽고 편하게 일할 기회도 갖고, 돈도 벌고, 매우 혜택이 늘었다.</li> <li>· 하고 싶어도 나이 먹어 못한 것을 내가 돈벌어 할 수 있게 되었다.</li> <li>· 도움도 받고, 그 대가도 치를 수 있어 미안한 일이 없어졌다.</li> <li>· 무엇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li> <li>·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li> </ul>
소극적 긍정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렵고, 소외받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것이다.</li> <li>· 비싼 일도 아니지만, 나누었다는 만족감만 있다.</li> <li>· 품목이 많아서, 활발히 되어야 가능하다.</li> </ul>
부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것은 도와주는 개념이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도와준다는 것도 아직 멀었다.</li> </ul>

\* 욕구의 통합 및 충족의 전체 평균 점수는 3.58임.



에 비해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는 아직 물질적인 혜택은 거리가 멀었다. 다만 현금 경제체제에서는 잠재되고 유보되었던 소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는 것과 이러한 서비스가 자신의 잠재된 욕구를 계발하는 자아실현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보상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자아실현의 기회 획득은 노인과 주부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위와 같은 실질적인 보상의 개념을 벗어나서 본다면 다양한 심리적 보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감은 회원들의 참여 동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자존감의 고양이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에도 상대방의 불충분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집단인식이다. 이를 두고 ‘별 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고마워 할 줄은 몰랐다’라던가, ‘남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즐겁다’ 등의 반응은 참여자들이 자존감 욕구를 충족 시키고 동시에, 집단에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 (4) 정서적 연계

지역통화운동의 참여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수확은 한결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교환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교감’을 나누고, 신뢰를 높이고, 주민간의 의사소통을 높였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표현하였다. 지역통화제도 참여자들은 ‘얼굴을 아는 거래’가 지역주민들을 연결시키고, 개인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환거래를 통해 주민들간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친밀감이 형성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의사소통 양식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비교해야만 하는 이전의 거래습관에서부터, 다양한 관심거리들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연결시키는 추천을 하며, 서로의 대가를 고맙게 주고받는 말들 때문이다. 즉 희소하지 않는 화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유로움이 의사소통을 지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교감이다.

〈표 12〉 정서적 연계를 반영하는 면질내용

구분	사례 수	내용
적극적 긍정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에 느끼는 친밀감이 커졌다. 정이 느껴진다.</li> <li>·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li> <li>·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신뢰가 생긴다.</li> <li>· 신뢰가 쌓이니까 관심도 늘어나고,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든다.</li> <li>·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되어가고 있다.</li> <li>· 사람들을 많이 알게된 뿌듯한.</li> <li>· 살면서 편안한 느낌, 친구와 같이 있다는 느낌.</li> </ul>
소극적 긍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전히 그 애를 잘 모른다. 그렇지만 더불어 산다는 느낌이 든다.</li> <li>· 이웃간의 거리가 좁혀지는 듯한 감정.</li> </ul>
부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 공부시켜줘서 고마울 뿐이다.</li> <li>· 여전히 나와 같이 순수히 봉사하는 사람은 없다.</li> </ul>

\* 정서적 연계 평균점수는 3.94인.

그리고 주민들간에 관심을 표명하는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의 연대감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에 자신을 둘러싼 연계망이 이미 일정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참여자 집단은 모두 이러한 교환거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면서 개방적인 지역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자체 단체장에 관한 이야기, 지역내의 문화행사 이야기, 지역사회내의 문제점 등 의사소통을 통한 공공영역의 구축을 활발하게 만든다. 교환거래를 통한 만남은 지역사회내의 개인들을 서로 그리고 지역과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말하는 사례들은 타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더 잦게 서비스 구입욕구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몇몇 이들은 주로 교환거래 경험이 없는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도적인 접근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지역주민들간에 '신뢰'를 쌓은 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친밀해지고 또한 연대성을 습득해 나가면서, 지역사회를 주민들의 공동운명체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 6. 결론

지역통화운동은 국가중심의 거시적 문제로부터 생활세계 주변의 다양한 미시적 문제로 시각을 돌려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권을 되찾게 하고 지역중심의 경제를 재창조하는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세계를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젖어 지역사회 참여에 소극적인 주민들에게 주민 스스로가 따르게 만들 규범을 구체적인 지역사회 관계내에서 구축하는 계기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통화운동이 비록 실용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혜택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자신의 연계망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과 주민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현실세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규범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지역통화운동이 특정 계층의 모임이 아닌 모든 연령과 모든 직업군을 통합하여 그들의 자원과 함께 '사람'의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주민관계가 상호간의 자립을 돕는 구조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통화운동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상호 책임의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공공영역의 창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주민의 자조능력 강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개발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통화운동은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풍성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데,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통화운동은 주민참여가 서로의 욕구를 옹호하고 지역사회정의의 실현하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통화운동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공동체의 회복은 첫째, 전통적·유교적 가치관으로의 윤리적 태도만을 중요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경제와 연관되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주민들의 공동망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협동노동이 사라진 현대에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적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이는 지역공동체가 막연한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주민욕구에 부합한 자원을 묶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우리나라 나름의 지역통화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 일례로 국내 회원들의 욕구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교육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는 교육현실에서 지역통화를 통한 품앗이를 이용한다면 가정의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주민들의 의사소통 통로, 공적 장소가 마련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통화운동이 주민공동체로서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수많은 연결 통로를 개설하여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맺은 관계의 경계를 벗어나 있는 다른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역통화운동의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로 서로 관심을 갖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친밀감과 함께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얼굴을 아는 거래'가 이미 이들의 지역통화를 둘러싼 연계망에 퍼져있고 또한 이 통로를 통해 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회단체들의 주민모임에서 부터라도 지역통화를 실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지역통화운동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혜택의 정도가 지금과는 달리 의미 있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생활양식의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역통화운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연대의 가능성이며, 복지사회를 향한 지난한 과정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 박호강. 1980. “공동체의 개념적 분석과 이념적 역할,” 《지역사회개발논총》, 제3권.
- \_\_\_\_\_. 1987.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 이가옥·고철기. 1998.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고령자 고용·소득의 대안모색》, 제4회 세계 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자료집.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지역교환거래망 구축을 통한 실업자 보호 방안》.
- Brandt, B. 1995. *Whole Life economy*, New Society Publishers, Gabriola Island.
- Cahn, E. 1997. “The Co-Production Imperative”, *Social Policy*, Vol.62.
- Cahn, E. & I. Rowe. 1996. *Time Dollars*, Family Resource Coalition of America.
- Chavis, Hogge, Mcmillan, Wandersman. 1986. “Sense of community through Brunswick’s lens: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4.
- Bell C. & Newby H. 1972. *Community Studies: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the Local Community*.
- Davidson W. B. & Cotter P. R. 1986.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6.
- Dauncey G. 1996. *After the Crash*, Green Print.
- DeMeulenaere, S. 1998. “An Overview of Parallel, Local and Community Currencies in Asia, Africa”, <http://ccdev.lets.net/overview.html>
- Dobson, A 1993. 《녹색정치사상》, 정용화 역. 민음사.
- Douthwaite. 1996. *Short Circuit*, Green books.
- Fortier, J(1996), “지역통화 - 공동체를 살리는 기술,” 《녹색평론》.
- Gabriel, Y. & T. Lang. 1995. *The Unmanageable Consumer: Contemporary Consumption and its Fragmentation*, London; SAGE.
- Glynn, T. J.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vol.34.
- Gran, E. 1998. “Green Domination in Norwegian Letsystems: Catalyst for Growth or Constraint o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2.
- Greco, Jr., T. H. 1998. “Improving Local Currencies, or How to Make a Good Thing Better”, <http://azstarnet.com/~circ/implocur.html>
- \_\_\_\_\_. 1994. “New Money for Healthy Communities”, <http://www.ic.org/market/>

- Harrison. 1995. "Community Development",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 Jean L. Hill. 1996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 4.
- Ingleby, J. 1996. "Local Economic Trading Systems: Potentials for New Communities of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2.
- Jackson, M. 1997. "The Problem of Over-Accumulation: Examining and Theorising the Structural Form of LE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1.
- \_\_\_\_\_. 1993. "Helping Ourselves: New Zealand's Green Dollar Exchanges," <http://www.nailbase.ac.uk/lists/eco-lets/files/nzgreen.txt>
- Lambert, S. J. & Hopkins, K. 1995. "Occupational Condition and Worker's Sense of Community: Variation by Gender and Ra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No. 2.
- Lang, P. 1994. *Lets Work*, Montpelier: Grover Books.
- Lee, R. 1996. "Moral money? LETS and social construction of local economic geographies in South East Eng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8.
- Linton, M. 1993. *Local Currencies Information Pack*, Landsman Community Services Ltd.
- Lounsbury, J. W. & Deneui, D. 1996. "Collegiat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Relation to Size of College/University and Extroversion".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theory and defini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 \_\_\_\_\_. 199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 4.
- Meeker-Lowry, S. 1996. "Community Money: The Potential of Local Money," *The Case against the Global Economy*,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Moers, P. 1998. "Community Currency Systems: A Co-operative Option for the Developing World", <http://ccdev.lets.net/moers.html>
- Nasar & Julian. 1995.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the neighborhood,"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 Vol. 61, No. 2.
- Pacine, M. 1997.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as a Response to the Globalisation of Capitalism", *Urban Studies*, Vol. 34, No. 8.
- Pepper, D. 1993. *Eco-Socialism: from deep Ecology to Social Justice*.
- \_\_\_\_\_. 1996. "Lets and Localism," *Modern Environmental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erkins, Florin, Rich, Wandersman. 1996.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evance to Adolescents of All Ag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 Prezza, M & Costantini, S. 1998.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8. pp.181~194.
- Royal, M & Rossi, R. J. 1999. "Predictors of Within-School Differences in Teacher'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2, No. 5.
- Sagy, S., Stern, E., Krakover, S. 1996. "Macro-and Microlevel Factors Related to Sense of Community: The Case of Temporary Neighborhoods in Isra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4, No. 5.
- Seron, S. 1995.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http://www.gmlets.u-net.com/resources/sedonie/home.html>
- Seyfang, G. J. 1994. "The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Audit," Unpublished MSc thesis, University of East Anglia, Norwich, UK.
- \_\_\_\_\_. 1997. "Examining Local Currency Systems: A Social Audit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1.
- \_\_\_\_\_ & Williams. 1997. "레츠, 상호부양의 교환체계", 《녹색평론》 40호.
- \_\_\_\_\_. 1998. "KwinLETS: Working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http://dialspace.dial.pipex.com/g.seyfang/kwinLETS.html>
- Thorne, L. 1996.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a case of re-embedd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28.
- Visser, A. M. 1996. "The Case for Community Centred Economics," <http://sane.org.za/article2.html>
- \_\_\_\_\_, "Local Currencies and Trading Systems: Creative Solutions to Unemployment and Community disempowerment," <http://sane.org.za/article4.html>
- Williams, C. C. 1996.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 a new source of work and for the poor and unemployed?",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28.
- \_\_\_\_\_. 1997.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LETS) in Australia: A New Tool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 1.

##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through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Korea

Kim, Dong-Bae (Yonsei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Kim, Hyoung-Yong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i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idents' life style affected by community-oriented behavior, and to assess the implication of changes in communities and in the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resulted from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Korea.

4 Community Currency organization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some methodologies such as field research, survey of actual conditions and depth interview research were used. By using of this methodology, We can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urrency Movement in Korea and the degree of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esidents recognized 'new' community and felt 'a sense of belonging' by exchanging the community currency. They have also expande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ommunity through the exchange of this currency. Along with this change of attitude, participants have made a new community norms and they have been more or less controlled by the norm. Moreover, the emotional satisfaction and the needs for improving self-esteem have been realized within the community, and the intimacy as well as solidarity have been built up and enhanced. In conclusion,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gives a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communities that seek to solve the community problem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communal effort by the residents themselves. Furthermore, in terms of community welfare, this process will be of an immense help in reinforcing self-help ability of the residents effectively.